

4-26-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이사야 61:1-11

말씀 제목: 은혜의 복음과 복수의 날을 선포하신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실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였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쁨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사 61:1-2a)

마침내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자신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쁨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눅 4:16-21)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복수의 날을 선포한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복수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연이어 예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사 61:2-3)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이 시온에 자신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다림으로 인해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이 그들을 미워하며 박해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9)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세워지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시오니즘의 소망을 지금도 여전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거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사 61:4-8)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 육백만명을 죽인
홀로코스트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수의 손길이
이란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들을 향한 복수의 메시지를
예언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앞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가름집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숫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라.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사 34:1-8)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